



제목	Revolutionary Iran: A History of the Islamic Republic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3. 9. 1.
저자	Michael Axworthy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528
ISBN 또는 ISSN	978-0199322268

내용 요약

이 책은 이란의 혁명에 관한 역사서이다. 대다수의 이란인들은 외국의 적에 대해서는 단결하지만 혁명에 대해서,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의 본질과 국민의 능력에 대한 문제에서는 분열되어 있다. 1980년 9월 국민투표에서 이란에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새로운 입법은 예기치 않게 보수적인 정부를 낳았고, 주요 종교 성직자들의 정치적 권위가 정부 기구를 장악하였다. 미대사관 인질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다. 저자에 따르면, 혁명의 효과는 양극단을 오고갔다. 혁명은 사와 사의 왕위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재규정하였다. 부유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반군주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배제되었다. 가난하고 열정적이고 지방 출신의 사람들의 이익은 인정되었다.

이들 승자들은 민첩하고, 무자비하고, 종종 폭력적이었다. 할랄리(Sadegh Khalkhali)와 호메이니는 혁명을 거부하는 ‘혁명의 적들’에게 복수하였다. 일부 혁명 세력들 1981년 6월 폭격을 가해 이슬람공화국당의 70명의 지도자들이 희생되었다. 두 달 후 자살폭탄 테러로 이슬람공화국당의 의장과 총리가 살해되었다. 1988년 수천 명의 죄수들이 처형되었다. 공포 정치는 프랑스 혁명과 유사하였고, 혁명가들이 권위 주의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은 영국의 크롬웰(Cromwell)과 비슷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혁명의 종교적 간극은 세속적인 서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까지 개 혁주의자들은 국가가 권력을 포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불리했다. 책은 2012년 여름 선거에 대한 방송 보도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유익하다.